

Bonga 입찰 곧 시작, OPEC발 유가/탱커 랠리

코멘터리

신조선가치수는 12주 쯤

① 128p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.현대중공업의 Vitol 수주건이 클락슨에 아직 입력되지 않았고,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수주한 LNG선 신조선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.

② 그러나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신규로 LNG선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리스 선주들에게 바둑 \$185m 대비 \$2m~\$3m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.

LNG

③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Thenamaris로부터 LNG선 1척을 수주했습니다. 2011년 투기발주 2+1척으로 LNG선 시장에 진입한, 동 선주는 7년만에 LNG선을 다시 발주합니다. 공급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.

④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 발맞춰, 한국 Kogas는 러시아 Novatek과 Arctic LNG2 관련 MOU를 체결합니다. 쇄빙 LNG선 15척의 향방이 관심입니다.

큰 해양 2건이 진행 중...

⑤ Shell과 나이지리아 정부의 Bonga FPSO 사업협약이 마무리 단계여서, 곧 입찰초청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. 9월로 연기 가능성도 있지만, 빠르면 연말 아마도 내년초 제작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신조, 개조, 리스 등 모든 제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만, 나이지리아 현지 중속사 SHI-MCI를 통해 로컬콘텐츠 대응에 유리한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.

⑥ ConocoPhillips의 Barossa FPSO 2개 FEED 컨소시엄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. 맞춤형 신조의 TechnipFMC+삼성중공업, 표준타입 Lease of Moderc의 FEED를 검토해, 2019년 제작사가 결정됩니다.

삼성중공업이 큰 프로젝트 2건을 연말~2019년에 걸쳐, 노리고 있습니다. 선전을 기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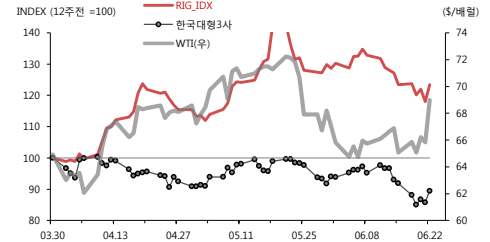
22일 OPEC 회의에서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

⑦ 2016년 11월 180만 배럴 감산 합의 이후, 1년반만에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. 그러나 경제 위기의 베네수엘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증산량은 60만 배럴에 그칠 전망이며, 증산 규모가 우려보다 작아 불확실성이 줄면서 국제유가와 한국조선의 피어그룹인 RIG사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. 탱커 선주들도, 특히 VLCC 시장 개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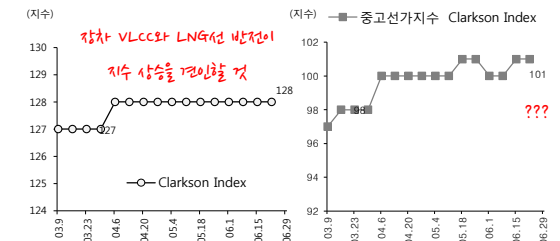
⑧ Maran은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VLCC 4척 중 2척을 Chevron에 용선계약(3년)을 체결했는데, Dayrate가 \$35,000/day로 Tier II에 비해 +\$11,000/day 높았는데, 1년 환산 시 \$4m로 Scrubber 투자비 \$3m보다 많습니다. 즉, Tier-III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. OPEC의 증산(=물동량 증가)에 Tier-III 탱커 발주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대표 차트

유가, RIG PLAYER, BIG3



신조선가 지수, 또 보합



문재인 대통령, 러시아 방문에 푸틴과 정상외교 : 쇄빙 LNG선 15척의 향방은?



주시 뉴스

※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

L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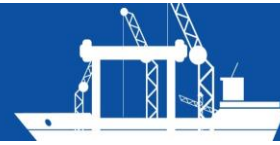
- ▲ Novatek, Kogas와 Artic LNG2 사업 MOU 체결
- ▲ Thenamaris, 현대중공업에 LNG선 1척 발주: 7년만의 투자 재개

신조선가와 프리미엄

- ▲ Maran의 scrubber 장착 VLCC를 Exxon이 좋은 조건에 용선
- △ 한국 조선사들 LNG선 신조선가 올리기 시작

돌아오는 해양

- ▲ Shell의 Bonga FPSO, 곧 입찰초청
- △ Barossa FEED 2사 선정: TechnipFM+SHI의 신조 vs. Moderc의 Lease 경쟁
- △ Transocean, 2000년 안팎 건조 RIG 4기 은퇴 결정
- ▷ Woodside의 Scarborough, Pluto 프로젝트 입찰 경과



ASP & 실적관련(국내외)

▷ 신조선가, 중고선가지수 모두 보합

- 신조선가는 파나막스 벌크선 신조선가만이 올랐고 지수는 128p 보합: 12주째 제자리
- 중고선가는 벌크 몇몇 선종이 올랐지만 지수는 101p 보합

△ 한국 조선사들 LNG선 신조선가 올리기 시작

- 최근 조선사들의 LNG선 신조선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
- 바닥 \$185m에서 Latis, Marinakis 등, LNG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선주에게 \$2m~\$3m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짐

외신 보도들

- 뉴스/FACT > 당사 의견

▶ 해양 / 시추

▲ Shell의 Bonga FPSO, 곧 입찰초청

- Shell은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상업절차들을 곧 해결하고 곧 입찰초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: ITT가 모두 준비되었지만, 파트너들과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대기
- 6개의 패키지로 입찰이 진행됨: 드릴링, FPSO, Subsea 등: FPSO는 2015년의 225천b/d FPSO보다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작아진 150천b/d로 변경
- 원래는 아래 과거 기사들과 같이 1년전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,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협상이 길어짐
- : Shell은 값비싼 로컬컨텐츠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
- 따라서, 본 사업은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NPV가 크게 많지않고, 비슷한 사업들에 비해 3배나 높은 투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
- FPSO에 대해서는 개조, 신조, Lease의 모든 제안이 가능: 한국, 중국, 미주/유럽 야드들이 관심
- 일각에서는 입찰서류 배포가 9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평가: 파트너들간의 이견 때문
- 한편 나이지리아는 2000년 2.05백만 bpd 생산량에서, 2014년 1.807백만 bpd를 거쳐 2017년 1.5백만 bpd까지 오일 생산량이 줄
- >> SHI-MCI(Ladol)로써 로컬컨텐츠 대응이 가능한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예상합니다.

(2016년9월) △ BSWA, 입찰서류 곧 접수

- Shell은 9월 안으로 10여개 응찰자로부터 BSWA(Bonga South-West)의 입찰 서류를 받을 예정
- Shell은 1Q18까지 FPSO와 SURF의 technical과 commercial 입찰을 끝낼 예정
- 2018년 7월~8월까지 입찰을 평가해서, 2018년10월 본계약을 마치고, 연말 FID,
- 2021년 상반기 야드에서 Sailaway해서, 2021년 하반기 Topsides Integration을 거쳐, 2022년 중순 생산 개시 스케줄
- 나이지리아 FPSO 사업으로서, 더 강력해진 탐사이드의 50%를 현지 제작해야하는 로컬 컨텐츠 적용
- 또는 신조 외에 FPSO lease나 개조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
- 한국 BIG3 외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우스와 야드들이 합작 입찰
- 구도를 띄는데
- SBM Offshore(네)+COOEC(중) vs. Bumi Armada(말)+Saipem(이)+Teekay(미) vs. TechnipFMC+COSCO(중), CPOE(중)+CIMC Raffles+Monobuoy Nigeria(나) 구도로 참여하며
- 싱가포르 야드들의 입찰 참여여부는 불확실한 가운데, FPSO lease 업체들의 제작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함

(2016년02월) △ Shell의 Bonga South West FPSO의 EoI 접수: 빠르면 7월 입찰 시작

▷ 사우디 Aramco의 LTA 선정에 최소 4곳 응찰

- Sapura Energy, COOEC, TechnipFMC-MMHE, Lamprell-Boskalis의 최소 4곳이 technical/commercial offer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짐
- 한국의 현대중공업, 스페인의 Dragados Offshore는 초기 흥미를 보였지만, 입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함
- 선정에는 로컬컨텐츠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짐: 최소 30% 이상 준수
- >> 사우디아라비아 합자 야드에 투자 및 기술 지원 중인, 현대중공업의 수주를 기대해 왔습니다만.
- >>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점이 우려됩니다.

(05월4주) ▲ 사우디 Aramco의 LTA 업체 추가 선정: 입찰 5월초에서 6월6일로 연기

- 입찰서류가 5주초 제출되었어야 했지만, 아람코가 데드라인을 6월6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짐
- 최종 LTA 확대 업체 선정은 3분기로 예정되어있었지만, 몇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임
- 현재 8개 EPCIC 업체가 응찰하고 있고, 이중 2~3개를 선정할 전망
- : 신규 참여희망사) 중국 COOEC, 말레이시아 MMHE, TechnipFMC,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, 영국 Lamprell + 네덜란드 Boskalis, 스페인 Dragados Offshore
- : 기존 LTA 회사) McDermott(미국), Dynamic Industries(미국), Saipem(이태리), Larsen & Toubro(인도), Subsea7, NPCC
- LTA는 2015년에 처음 도입되어 5개 업체가 선정되었고, 향후 NPCC가 추가됨: 6년 agreement 기간 + 6년 연장 옵션
- LTA 업체들은 불황기인 지난 2년 동안에도 6십억\$의 프로젝트를 아람코에서 따냈고, 현재 아람코 입찰 사업도 3십억\$에 달함
- 그리고 아람코는 향후 10년간 300십억\$ 사업에 투자할 계획

(04월3주) ▲ 사우디 Aramco의 Offshore 발주 현황 및 LTA 업체 추가

(01월4주) △ 사우디 Aramco 향후 10년 300십억\$ 투자 위해, Offshore LTA 추가 3개사 선정 예정: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도 물망



▷ Woodside의 Scarborough, Pluto 프로젝트 입찰 경과

- 110억\$ Scarborough와 Pluto Train2 Expansion의 4개 패키지에 9개 업체들이 응찰 중함
- Scarborough의 emi-submersible production platform, subseas, 파이프라인, Pluto의 4가지 패키지
- PQ나 EOI(Expression of interest) 대신, Scarborough 3개 패키지에 각각 2개 경쟁사, Pluto에 3개 경쟁 업체를 직접 선정
- 우리의 관심 semisub에는 Fluor와 McDermott이 경합: 4만톤~5만톤 탑사이드, 900m deepwater
- 4~5MTPA의 Pluto Train2는 modular로 제작될 예정임
- 현재 Woodside는 Scarborough의 pre-FEED 및 concept definition engineering을 수행 중이며, 향후 선정된 업체들이 내년초 FEED를 시작: 2023년 생산 개시
- Woodside는 ExxonMobil의 지분 50%를 인수해, Scarborough 지분의 75% 보유, Pluto LNG의 90% 보유

(05월4주) ▼ Woodside도 중국 야드에서 구조물 제작 계획

- 호주 Woodside Petroleum은 중국 야드에서의 해양구조물 제작을 호의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힘
- 향후 Scarborough와 Browse 필드 개발, Pluto LNG 2번째 train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
- 구조물 시공(Construction)에 있어서, 중국 야드는 가격에서 경쟁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, 또한 품질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
- 10년 전 한국 조선사들의 해양 진입 스토리와 유사하다고 설명
- 1) Scarborough: FEED는 2019년 1분기, FID 2020년초, 생산개시 2023년, 300mcf/d, 4만톤 탑사이드의 semisub와 신규 LNG Train의 사업규모는 110억\$
- : Woodside는 내년초 시작할 Scarborough의 FEED 계약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힘
- 2) Pluto LNG의 2번째 train: 300mcf/d, 4~5MTPA, 모듈형태로 제작/설치 예정
- : 기존 Pluto LNG는 FosterWheeler와 WorleyParsons가 JV로 참여
- 3) Browse: 2개의 대형 FPSO를 기존 North-West Shelf LNG 설비와 900km 파이프라인 연결 예정, 150억\$ tkdj d Ptkd
- 입찰에 다수 제작사보다는 2~3개로 압축해 경합을 진행할 예정이며,
- Hull과 Topside 제작을 분리해, 중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힘
- Woodside의 대표 Coleman은 "과거 한국 대형사들의 몫이었지만, 지금 한국은 원가 구조를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, 다른 곳(중국)을 돌아보게 되었다"고 언급

(2017년1월) ▷ Scarborough 2018년 FEED 및 개발 컨셉 결정 예정: FLNG vs. Onshore

△ Barossa FEED 2사 선정: TechnipFM+SHI의 신조 vs. Modec의 Lease 경합

- 미국 ConocoPhillips는 FEED 병렬 수행할 2사를 모두 선정: 영구 Mooring + 4만톤 탑사이드 예상
- Barossa는 호주에서 2013년 standalone으로 진행되는 첫 프로젝트
- FID는 2019년말 예정
- >> FEED 종료 후 최종 선택이 남아있어, 삼성중공업의 2019년 기대 수주POOL로 볼 수 있습니다.

(04월5주) △ Barossa FEED Shortlist 두곳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확정 & Lease 중 Modec 유력

- ConocoPhillips의 FEED 입찰에서 TechnipFMC+삼성중공업이 먼저 확정적인 것으로 업데이트: SMB, Modec, Saipem과 경쟁
- 그리고 남은 1개사는 Lease FPSO와의 기술/가격 비교를 위해 SBM, Modec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
- Modec은 호주에 Lease FPSO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반해, SMB는 없어서, Modec과 TechnipFMC+삼성중공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
- FEED사는 몇주내로 결정되어 시작될 예정임: 컨소시엄은 2018년 3월23일 FEED 개시를 결정
- 2013년 이후 첫 호주의 standalone 해양공사이며, 본 FPSO는 탑사이드 4만톤, 200m~320m 바다에서 작업 예정

(01월5주) ▷ ConocoPhillips의 Barossa FEED 2사 곧 선정

(01월1주) △ Barossa FPSO에 4개 숏리스트 곧 선정: 2Q18 FEED 시작

(09월4주) △ ConocoPhillips, 북호주 Caldita-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

(07월2주) △ Caldita-Barossa FEED 입찰 7월 → 2018년초 선정

(16년03월) △ 호주의 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

▽ Newage FLNG, 중국 2곳에 발주

- SBM Offshore와 JGC 컨소시엄은 카메룬 Newage LNG 프로젝트의 FLNG 제작처로, Hull에 상해 후동조선, Topside에 COOEC를 선정
- 탑사이드 모듈은 Bomesco, Wilson Offshore & Marine, Penglai Jutal OE, Keppel Nantong SY 등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음
- 이 FLNG는 Newage사가 최소 8년 용선 예정: 2023년 가동 시작, 1TCF의 매장량에 최근 2개의 평가시추로 최대 2TCF까지 매장량 증가
- 17억\$ 사업에 1.4MTPA의 구조물이 될 것으로 짐작: NewAge는 생산원가가 \$5~\$7/MBTU라고 주장
- >> 최근 해양 플랜트를 중국, 싱가포르에 계속 뺏기고 있어 민감한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,
- >> Barge 형태의 FLNG여서, 한국의 신조 FLNG와는 다른 단순한 구조물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.

(2017년2월) ▽ NewAge, 콩고 FLNG 발주 곧: 그러나 SHI Hull에서 빠짐

- 네덜란드 SBM Offshore와 JGC 컨소시엄이 경쟁에서 승리: 1MTPA보다 약간 더 큰 용량, \$500m
- 구체적인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대화로 접어들었고 1Q 중에 본계약 목표: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최종가격을 제시할 예정
- FID는 올해 또는 내년이고 2020년~2021년 생산개시 예정
- 그러나 초기 입찰에서 Hull 제작 등으로 참여했던 삼성중공업은 빠지고, 후동중화가 선택된 것으로 전함
- 탑사이드 제작은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, 중국에서 LNG 모듈을 제작해본 최대 6개 조선사가 있음: COOEC 가능성 높음
- NewAge는 Lease 형태로 FLNG를 이용하고, CBLNG라는 회사를 만들어 Marine XII 파트너에게 가스매각도 완료: Eni 65%, NewAge 25%, 국영 SNPC 10%

(16년11월4주) ▲ Congo의 FLNG에 4개 컨소시엄 경합

△ Transocean, 2000년 안팎 건조 RIG 4기 은퇴 결정

- 5세대 드릴쉽 3기(Deeper Discoery, Frontier, Millennim)과 midwater floater Songa Trym 1기로, 총 4기
- 드릴쉽들은 1999년~2000년 건조로, 현재 cold-stacked 상태
- Transocean은 : 작년 9월에도 3기의 Rig를 해체하며, 14억\$의 손실을 처리한 바 있고, 이번 2분기에도 4기 은퇴로 \$520m 손실 반영 예정
- 올해 누적 12기의 Floater와 28기의 책임력이 은퇴했고,
- 2014년부터는 111기의 Floater와 75기의 책임력이 은퇴: Floater의 20% 정도 공급이 줄었고, 책임력은 인도가 많아 Fleet이 조금 늘어남
- 현재 건조 중인 Rig는 2기의 책임과 5기의 Floater가 2021년 인도 예정



▶ LNG

▲ Thenamaris, 현대중공업에 LNG선 1척 발주: 7년만의 투자 재개

- 그리스 Thenamaris는 2011년 이후 오랫동안 현대중공업에 174k-cbm + XDF 엔진의 LNG선 발주: 2020년 인도
- 2011년에는 160k-cbm 2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하고, 옵션을 행사해 1척을 추가 건조: 앞의 2척은 Chevron에 용선, 이번 계약으로 총 4척의 LNG선대
- 아마 계약은 포세도니아 행사에서 체결된 것으로 짐작되는데, 늦게 알려진 것: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
- 최근 조선사들의 LNG선 신조선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: 바닥 \$185m에서 Latis, Marinakis 등의 신규 투자 희망 선사에게 \$2m~\$3m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하

▲ Angelicoussis의 Maran, 대우조선해양에 발주 확정

- 포세도니아 기간에 알려진, Maran Gas Maritime ~ 대우조선해양의 173,400-cbm와 FSRU 계약이 확정: 2020년 하반기 인도
- 옵션들은 만기 직전에 행사된 것으로 전해짐

▲ Novatek, Kogas와 Arctic LNG2 사업 MOU 체결

- Kogas가 Arctic LNG2 탐사 기회 및 Novatek의 시베리아 프로젝트에서 LNG 구매에 대한 MOU
-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에 맞춰 체결된 것으로 보임
- >> Arctic LNG2의 채빙LNG선 15척의 향방이 최대 관심입니다.

△ LNG Canada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프라인 계약 체결

- 21억\$의 TransCanada Pipeline의 건설공사를 SA Energy Group, Pacific Atalntic Pipeline Construction에 발주
- 사업 FID는 올해말 예정

(06월2주) △ Petronas, Shell의 LNG Canada 지분 25% 인수: 사업 탄력

- 말레이시아 Petronas는 Shell이 추진 중인 LNG Canada의 지분 25% 인수: Shell의 잔여 지분은 40%, 나머지는 PetroChina 15%, Mitsubishi 15%, 한국 KOGAS 5%
- 322억\$의 프로젝트는 6.5MTPA x 2개 train으로 구성되며, 지난 4월 Fluor, JGC에 EPC 발주
- FID는 2018년이지만, 에너지 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전망
- Petronas는 작년 7월부터 캐나다의 Pacific NorthWest 프로젝트도 재 추진하기 시작함
- 캐나다는 52TCF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해,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

(05월1주) △ 지난주 Flour-JGC가 Shell의 LNG Canada 본계약

(04월4주) △ Flour-JGC가 Shell의 LNG Canada 따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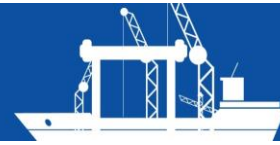
▶ 기타: 제값 받는 Tier-III

▷ 중국 Changxing SB, 21,000-teu 컨테이너선 인도

- 중국 COSCO Container Liner가 발주한 21,000-teu 6척 중 3척을 인도받으며 신기록 갱신
- 앞서 Cosco Shipping Universe는 후동중화로부터 20,000-teu 6척을 인도받은 바 있음
- 21,000-teu는 CSSC의 Marine Design & Research Institute의 디자인
- 중국은 장차 CMA-CGM의 22,000-teu를 건조하며 또 기록을 경신할 예정
-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삼성중공업이 OOCL의 발주로 건조한 21,413-teu이고, 이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더 큰 컨테이너선을 제작 중
- 한편 이번 21,000-teu 컨테이너선 제작 이익은 후반가격 상승으로 BEP로 전해지며, CMA-CGM의 22,000-teu는 Dual-Feul 스펙으로 도전적인 것으로 전해짐

▲ Maran의 scrubber 장착 VLCC를 Exxon이 좋은 조건에 용선

- Maran Tanker는 올해 대우조선해양에 계약한 VLCC들 중 2척을 ExxonMobil에 용선 계약 체결: 2019년 인도
- 3년 용선의 Dayrate가 \$35,000/day로, 최근 비슷한 선박의 \$24,000/day보다 양호
- Scrubber 장착에 추가 \$3m이 소요됨
- >> Dayrate 차익 \$11,000/day면 1년에 \$4m입니다.
- >> Scrubber는 실제 운항에서도, 용선에서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1년 안팎입니다.



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

▼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

①Thenamaris→Hyundai HI (Ulsan), LNG(174k) 1척

-그리스 Thenamaris는 2011년 이후 오랫동안 현대중공업에 174k-cbm + XDF 엔진의 LNG선 발주: 2020년 인도
-2011년에는 160k-cbm 2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하고, 옵션을 행사해 1척을 추가 건조: 앞의 2척은 Chevron에 용선, 이번 계약으로 총 4척의 LNG선대
-아마 계약은 포세도니아 행사에서 체결된 것으로 짐작되는데, 늦게 알려진 것: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
-최근 조선사들의 LNG선 신조선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: 바닥 \$185m에서 Latis, Marinakis 등의 신규 투자 희망 선사에게 \$2m~\$3m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짐

②Maran Gas Maritime→Daewoo (DSME), LNG(173k) 1척

(06월2주 플래쉬) ▲ 대우의 단골고객 Maran Gas, LNG선 1척, LNG-FSRU 1척 옵션 행사
- 대우조선해양의 단골 John Angelicoussis의 Maran Gas가 옵션을 행사해 2척 추가 계약: FSRU 1기, LNG선 1척
- 이로써 동사의 LNG선 잔고는 9척으로 확대, 기존 발주 1척(2017년)은 2020년, 이번 옵션 행사 2척은 2020년 하반기 인도 예정
- 관심의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
- FSRU는 작년 2월 발주한 계약(2020년 인도)에 딸린 옵션인데, 1호선의 인도도 2020년 3월 정도로 당겨질 전망
- 자매인 Anna Angelicoussis의 Alpha Gas도, 최소 1척의 LNG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: 오후에 Alpha Gas의 옵션 행사 보도 업데이트됨, 아랫 쪽지
>> John Angelicoussis는, 얼마전 포세도니아 포럼에서, LNG선 신조선가가 \$200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

③Tsakos Energy Nav→Daehan Shipbuilding, TK(114k) 2척

(06월2주) △ TEN → 대한조선, 115k-DWT 탱커 2척
- 뉴욕 상장사 Tsakos Energy Navigation은, 올해 3월부터 발주 협상이 알려졌던, 115k 탱커 2척을 대한조선에 발주: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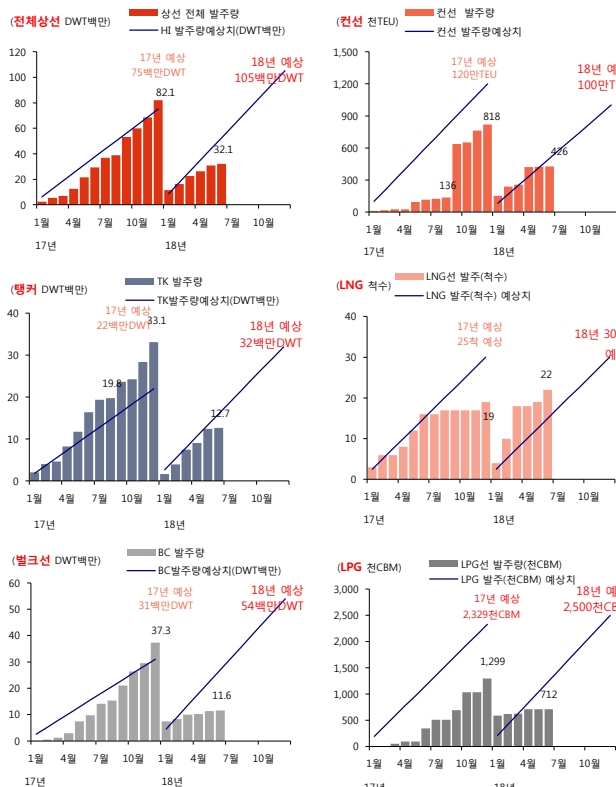
▼ 신조 발주설(뉴스 단계)

▲ 알제리 Hyproc, 현대미포조선에 PC선 발주하며 시장 데뷔

-알제리 국영 선사 Hyproc는 현재 LNG선 7척, LPG선 5척, 아스팔트 탱커 2척으로 14척의 선대를 보유 중인데,
-현대미포조선에 40k MR 탱커를 발주하며, 시장에 진입: 6월 초 계약으로 알려짐
-2019년말 인도의 단납기: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
>> 미포의 2019년 매출이 차 오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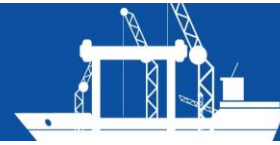
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

▶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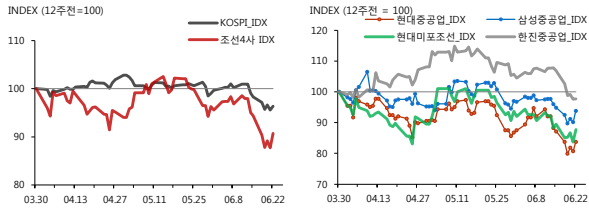
▶신조 발주 내역 - 한/중/일 주간

국가	조선사	계약일	발주 국가	발주처	Type	크기	인도	척수
18년05월4주								
중국	Taizhou Sanfu	18.5.25	아시아	Meghna Marine	BULK	64k DWT	2020	1
	Jiangsu New Hantong	18.2.1	유럽	Oldendorff Carriers	BULK	81k DWT	2019	2
	Chengxi Shipyard	18.5.17	북미	CSL Group	BULK	40k DWT	2020	1
	GSI Nansha	18.1.1	아시아	CSSC Shipping (HK)	PTK	76k DWT	2019	2
	Zhejiang Zengzhou	18.1.23	유럽	Tom Worden Schiffs	BULK	7k DWT	2019~2020	4
18년05월5주								
BIG6	Samsung HI	18.5.31	아시아	AET Tankers	TK	153k DWT	2020	4
		18.5.30	유럽	GasLog	LNG	180k cu.m.	2020	1
	Daewoo (DSME)	18.5.31	북미	Guggenheim Capital	TK	300k DWT	2020	2
중국	Shanghai Waigaoqiao	18.5.1	한국	Polaris Shipping Co	BULK	180k DWT	2020	1
중국	Jiangsu New YZJ	18.2.9	유럽	Tsakos Shpg & Trad	BULK	82k DWT	2019	2
	Fujian Mawei SB	18.3.23	유럽	MarLink	CONT	1k TEU	2019	2
	AVIC Weihai Shipyard	18.5.25	Unknown	Stena RoRo AB	FERRY	1k Pass.	2021	1
	Daoyang Offshore	18.2.1	중국	Unknown Chinese	TK	8k DWT	2019	1
	Aulong SB Co	18.1.1	중국	Unknown Chinese	FERRY	#VALUE!	2019	2
18년06월1주								
BIG6	Hyundai Mipo	18.6.6	한국	Pan Ocean	CONT	2k TEU	2019~2020	2
		18.5.11	유럽	Yasa Shpg. Industry	PTK	50k DWT	2019	4
	Daewoo (DSME)	18.6.6	유럽	Maran Gas Maritime	LNG	173k cu.m.	2020	1
중국	Jiangsu New YZJ	18.5.1	Unknown	Unknown	FSRU	173k cu.m.	2020	1
	Jinling Shipyard	18.6.6	유럽	Grimaldi Group	RORO	8k Lane m.	2021	6
18년06월2주								
BIG6	Samsung HI	18.6.12	일본	Mitsui & Co	PTK	50k DWT	2020	5
	Daewoo (DSME)	18.6.7	유럽	Alpha Gas	LNG	173k cu.m.	2021	1
		18.3.2	유럽	Pantheon Tankers	TK	300k DWT	2020	2
국영	Tianjin Xingang HI	18.6.6	중국	Sinopec	OTHERS		2019	1
민영	Jiangsu New YZJ	18.1.1	Unknown	Unknown	BULK	208k DWT	2020	2
	Jinling Shipyard	18.6.13	유럽	DFDS	RORO	7k Lane m.	2020	1
일본	Onomichi Dockyard	18.5.1	일본	Marubeni Corp	PTK	80k DWT	2020	2
	Kyokuyo Shipyard	18.3.21	일본	Maki Kisen	LPG	9k cu.m.	2020	1
	Oshima Shipbuilding	18.2.1	유럽	Oldendorff Carriers	BULK	100k DWT	2020	2
18년06월3주								
BIG6	Daewoo (DSME)	18.6.21	유럽	Maran Gas Maritime	LNG	173k cu.m.	2020	1
	Hyundai HI (Ulsan)	18.6.19	유럽	Thenamaris	LNG	174k cu.m.	2020	1
한국	Daehan Shipbuilding	18.5.28	유럽	Tsakos Energy Nav	TK	114k DWT	2020	2
민영	Jiangsu Hantong HI	18.2.1	Unknown	Carl Buttner	PTK	38k DWT	2019	2
	Chengxi Shipyard	18.6.20	아시아	Nova Shpg & Log	OTHERS	70k DWT	2020	4
	CMHI (Jiangsu)	18.6.10	유럽	Offshore Heavy	OFF-기타	#VALUE!	2020	1
일본	Sumitomo (Yokosuka)	18.5.1	유럽	Thenamaris	TK	112k DWT	2020	1
	Imabari SB (Imabari)	18.6.15	일본	K-Line	BULK	100k DWT	2021	1
	Oshima Shipbuilding	18.6.15	일본	Asahi Shipping	BULK	99k DWT	2021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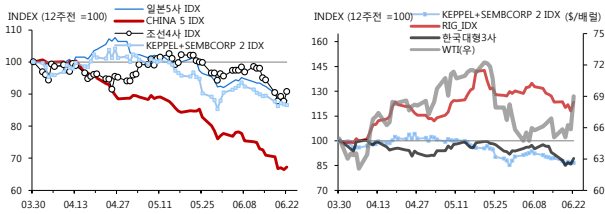


Peer Group 등 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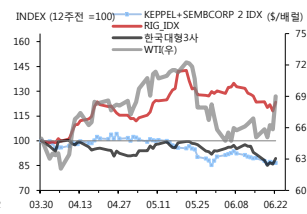
▶ 한국 조선 대형3사, 중형3사 INDEX



▶ 조선업 한중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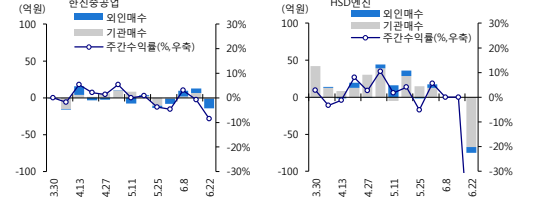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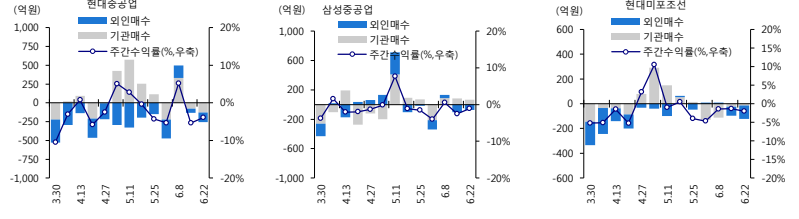


▶ 유가 VS 리그선주,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



조선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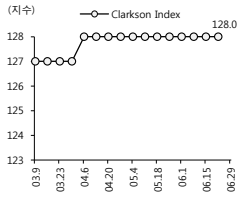
▶ 조선6사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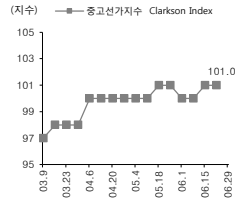


신조선가 & 중고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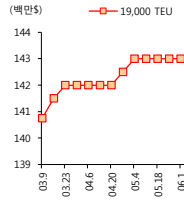
▶ 신조선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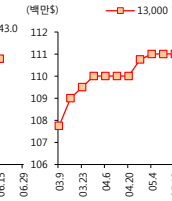
▶ 중고선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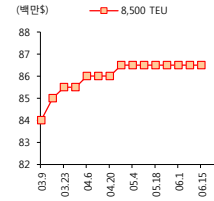
▶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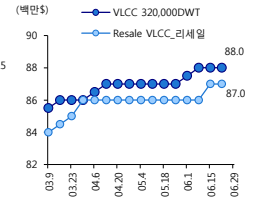
▶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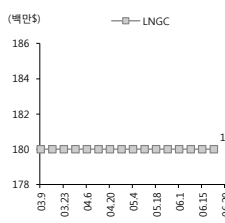
▶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- 8,500te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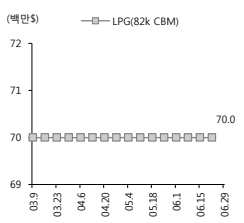
▶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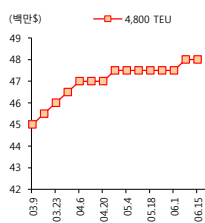
▶ LNG선 - 신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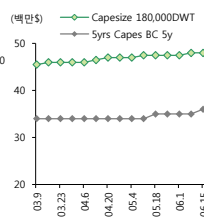
▶ LPG선 - 신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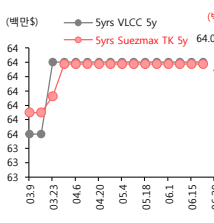
▶ 컨테이너선 - 신조선가 4,800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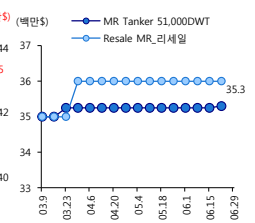
▶ Capesize 벌크선 - 신조, 중고선가



▶ VLCC, 수메즈막스 중고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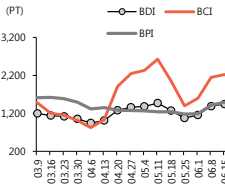


▶ MR탱커 신조vs리세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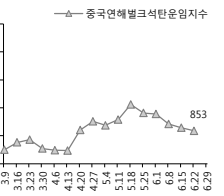


운임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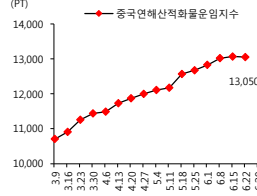
▶ 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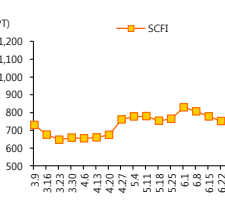
▶ 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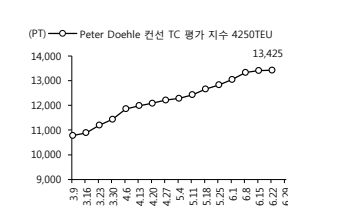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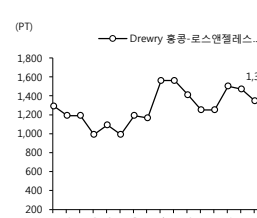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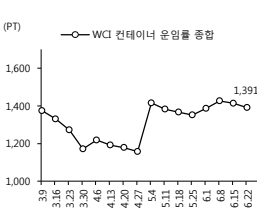
▶ 탱커



▶ 컨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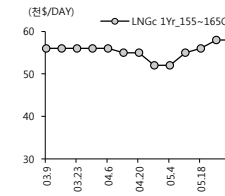


▶ 컨선 지표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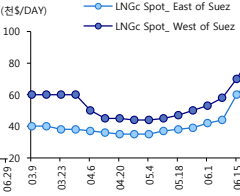


용선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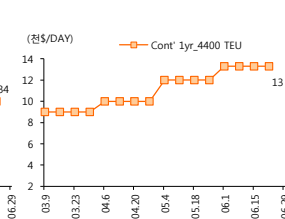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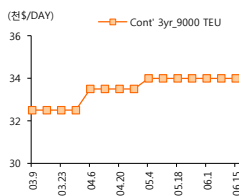
▶ LNG선 1yr 용선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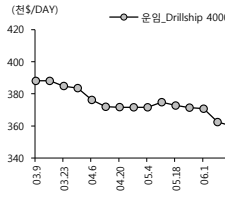
▶ LNG선 SPO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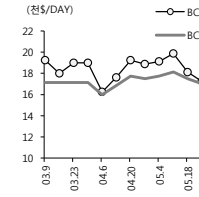
▶ 컨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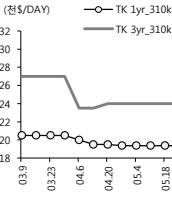
▶ 드릴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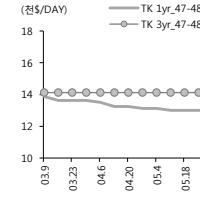
▶ 벌크선 - 케이프



▶ 탱커 - VLC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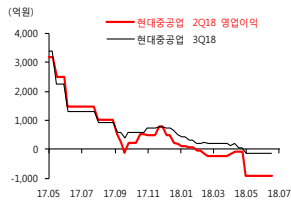


▶ 탱커 - M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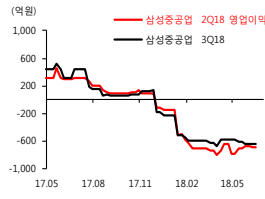


Consensu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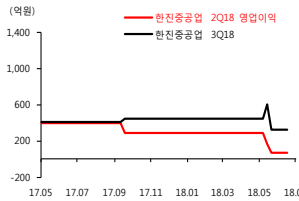
▶ 현대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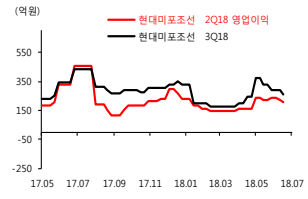
▶ 삼성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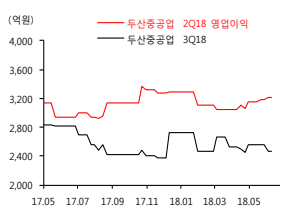
▶ 한진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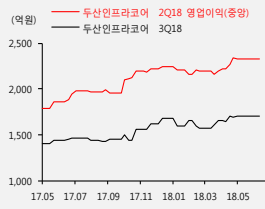
▶ 현대미포조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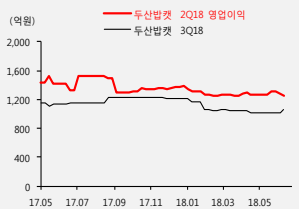
▶ 두산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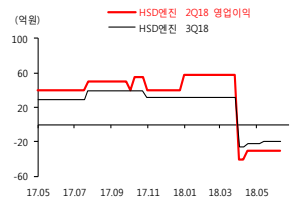
▶ 두산인프라코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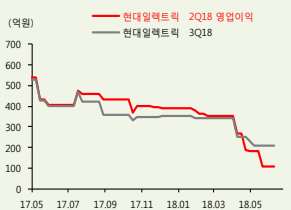
▶ 두산발켓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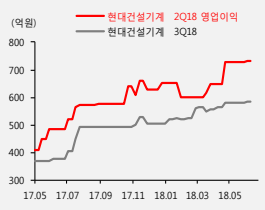
▶ HSD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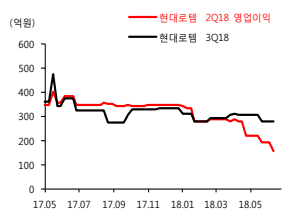
▶ 현대일렉트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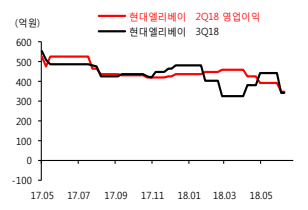
▶ 현대건설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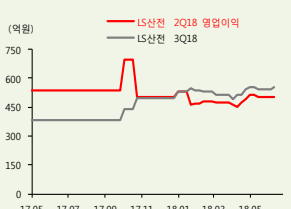
▶ 현대로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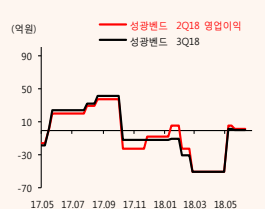
▶ 현대엘리베이터



▶ LS산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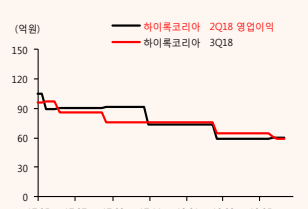
▶ 성광벤드



▶ 태광



▶ 하이록코리아



출처: Dataguide

▶ 조선/기계 EPS,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

그룹	종목	2018 EPS(원)									Chang(%)		VALUATION	
		다섯달전	네달전	세달전	두달전	18.05.26	18.06.02	18.06.09	18.06.16	18.06.22	2달전 대비	4주전 대비	2018 PER	증가
조선	현대중공업	513	-164	-1,591	-1,940	-3,279	-3,143	-3,330	-3,163	-3,163	적지	적지	-34.9	110,500
	삼성중공업	-325	-464	-455	-489	-375	-367	-372	-368	-369	적지	적지	-19.6	7,240
	현대미포조선	4,031	3,215	2,416	2,416	5,949	7,080	7,080	7,423	7,686	218%	29%	11.4	87,700
	한진중공업	29	-74	-509	-223	-224	-224	-75	-75	-75	적지	적지	-40.6	3,055
두산	두산중공업	1,420	1,240	1,227	1,162	851	788	750	707	707	-39%	-17%	22.1	15,650
	두산인프라코어	1,156	1,204	1,253	1,269	1,500	1,500	1,499	1,436	1,438	13%	-4%	6.5	9,390
기계	HSD엔진	83	-101	-122	-148	-120	-120	-171	-172	-236	적지	적지	-16.8	3,980
	현대건설기계	15,534	15,581	15,128	14,711	13,903	13,930	13,906	13,782	13,782	-6%	-1%	10.2	141,000
	현대일렉트릭	10,761	9,037	7,642	6,908	4,840	3,111	3,201	3,201	3,201	-54%	-34%	22.8	73,000
	LS산전	4,803	4,738	4,581	4,462	4,817	4,972	4,963	4,930	4,965	11%	3%	15.4	76,300
	현대엘리베이	5,603	5,172	3,877	3,073	2,541	2,541	2,375	1,915	1,915	-38%	-25%	52.7	101,000
방산	현대로템	830	811	757	637	567	490	467	467	413	-35%	-27%	71.8	29,650
	한국항공우주	1,604	1,420	1,280	1,227	1,297	1,305	1,285	1,300	1,311	7%	1%	30.7	40,300
	한화에어로스페이스	1,813	1,511	912	911	615	636	636	636	636	-30%	3%	40.2	25,600
	LIG넥스원	3,655	2,942	2,466	2,290	2,223	2,223	2,223	2,180	2,180	-5%	-2%	20.4	44,400
퍼팅	성광벤드	106	-8	-38	-75	-70	-55	-55	-55	-55	적지	적지	-209.7	11,550
	태광	302	302	302	302	302	302	302	302	302	0%	0%	39.7	12,000
	하이록코리아	1,912	1,741	1,413	1,413	1,322	1,297	1,297	1,297	1,297	-8%	-2%	21.8	28,2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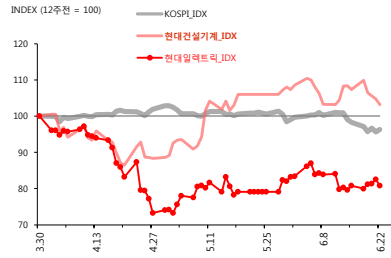
그룹	종목	2018 BPS(원)										ROE		VALUATION
		다섯달전	네달전	세달전	두달전	18.05.26	18.06.02	18.06.09	18.06.16	18.06.22	2018	2019	2018 PBR	
조선	현대중공업	230,284	231,574	240,578	172,864	169,907	170,189	169,692	170,269	170,269	-2%	1%	0.6	
	삼성중공업	19,316	20,345	20,321	19,549	12,386	12,291	12,286	12,313	12,439	-3%	0%	0.6	
	현대미포조선	129,072	122,714	126,280	117,204	118,112	118,347	118,347	118,801	119,564	6%	5%	0.7	
	한진중공업	8,773	6,782	6,105	6,105	5,593	5,593	5,338	5,338	5,338	-1%	-8%	0.6	
두산	두산중공업	30,258	29,665	28,884	30,124	30,546	30,545	28,037	28,567	28,566	2%	5%	0.5	
	두산인프라코어	11,744	11,157	10,899	9,981	9,877	9,877	9,877	9,537	9,537	15%	15%	1.0	
기계	HSD엔진	7,853	7,731	7,612	7,608	7,593	7,593	16,017	16,017	13,937	-2%	-1%	0.3	
	현대건설기계	128,963	129,058	129,743	134,289	139,230	139,230	139,263	136,338	136,338	10%	11%	1.0	
	현대일렉트릭	111,365	111,174	106,687	110,027	108,247	107,159	107,159	107,159	107,159	3%	7%	0.7	
	LS산전	43,668	43,276	42,882	42,585	42,840	42,823	42,915	42,923	42,862	12%	12%	0.7	
	현대엘리베이	43,206	41,080	36,829	33,177	31,998	31,998	31,998	41,903	41,903	5%	6%	2.4	
방산	현대로템	17,430	16,973	16,526	16,470	16,424	16,336	16,336	16,336	16,178	3%	7%	1.8	
	한국항공우주	14,301	13,985	12,950	12,835	12,548	12,439	12,439	12,294	12,142	11%	13%	3.3	
	한화에어로스페이스	45,277	43,958	42,105	42,135	41,295	41,271	41,271	41,271	41,271	2%	3%	0.6	
	LIG넥스원	32,108	30,588	29,179	28,710	29,139	29,139	29,139	28,904	28,904	8%	10%	1.5	
퍼팅	성광벤드	16,328	16,235	15,972	15,972	15,995	15,988	15,988	15,988	15,988	0%	2%	0.7	
	태광	17,110	17,110	17,110	17,110	17,110	17,110	17,110	17,110	17,110	2%	0%	0.7	
	하이록코리아	25,343	25,479	24,832	24,832	25,123	25,079	25,079	25,079	25,079	5%	7%	1.1	

출처: Dataguid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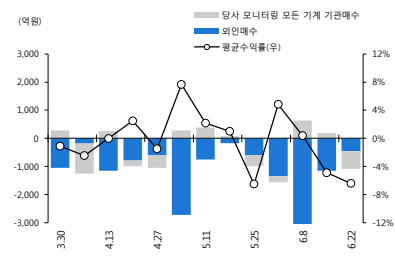
당사 기계 선호주 vs. 시장

▶ 당사 기계 선호주



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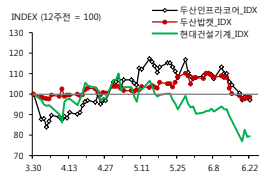
▶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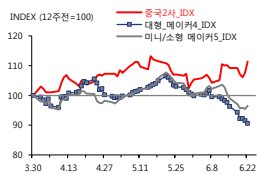


건설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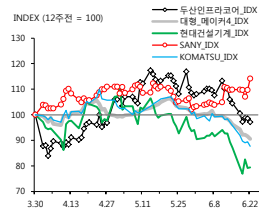
▶ 한국시장 성장 3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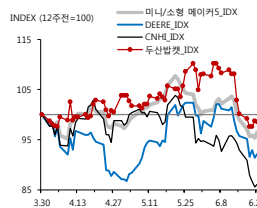
▶ 대형 vs. 미니/소형 vs. 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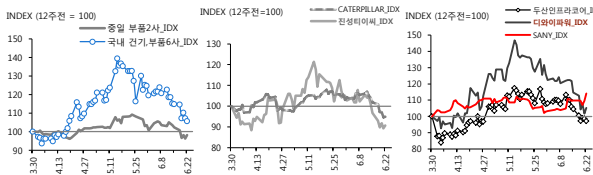
▶ 대형: 두산, 현중, 사니, 고마쓰



▶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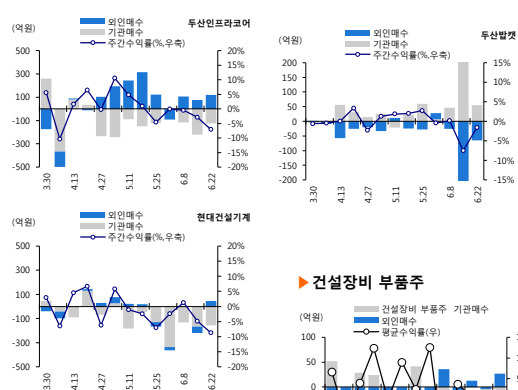


▶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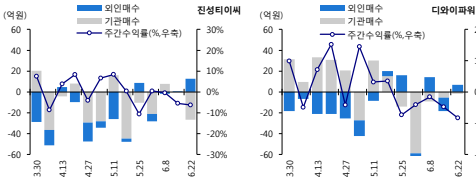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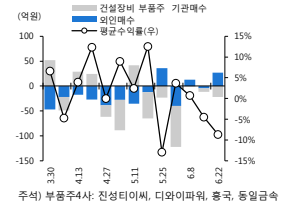


건설장비 수급

▶ 건설장비 메이커3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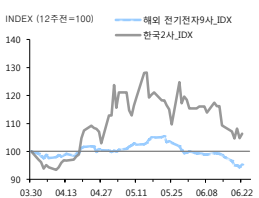


▶ 건설장비 부품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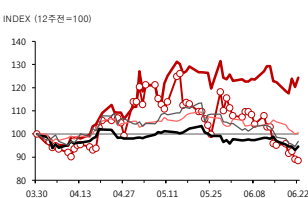


중전기

▶ 한국 vs.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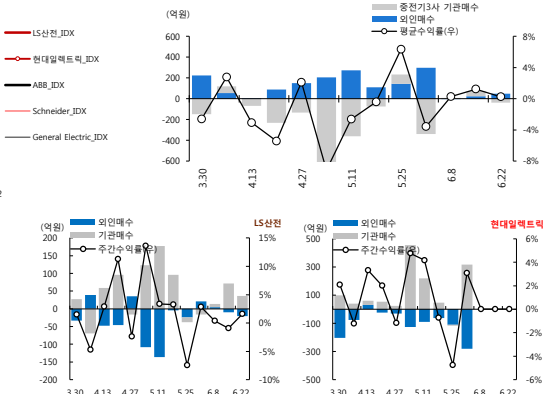


▶ 중전기 회사들 추가 Index



중전기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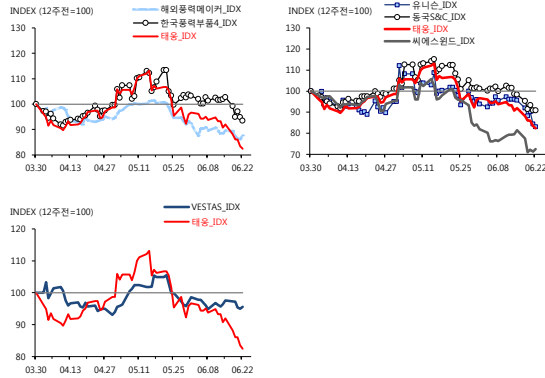
▶ 중전기3사(현대일렉트릭, LS산전, 효성) 수급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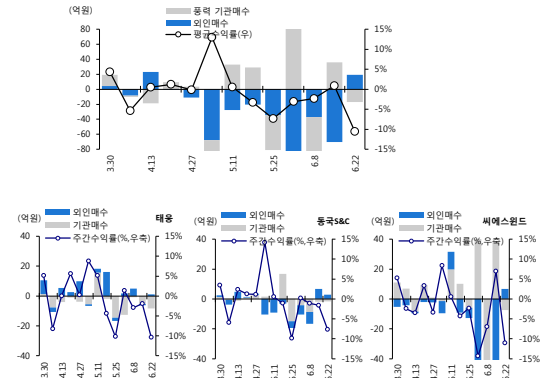
풍력

▶ 한국 풍력 부품사 vs. Global Peer ▶ 한국 풍력부품5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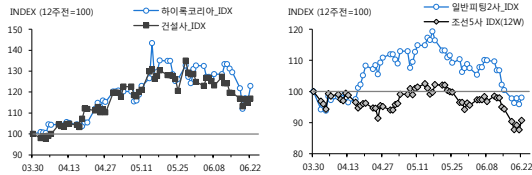
풍력 수급

▶ 풍력부품4사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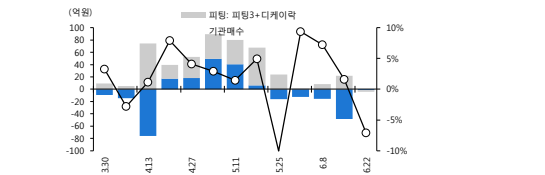


피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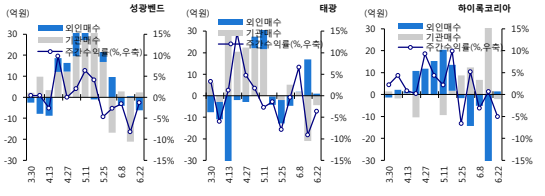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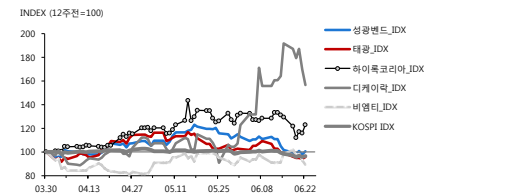
▶ 피팅 VS 전방1 건설



피팅업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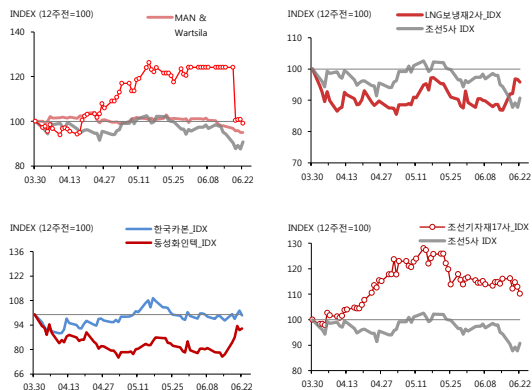


▶ 피팅 및 밸브사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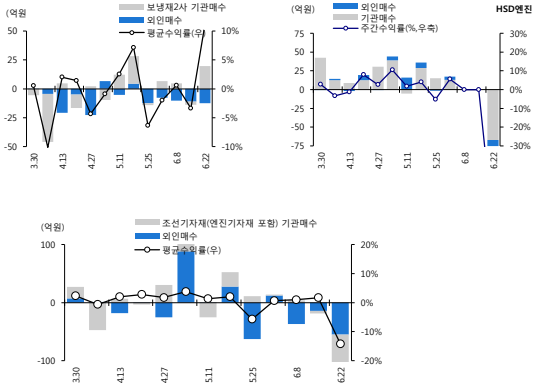
조선기자재

▶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▶ 엔진3사



조선기자재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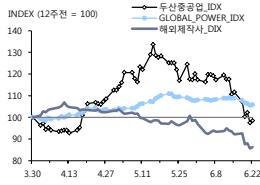
▶ 보양재 2사 ▶ HSD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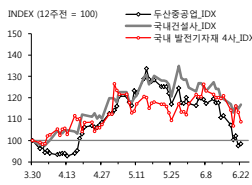


발전 및 발전기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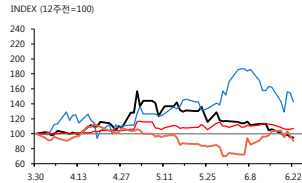
▶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



▶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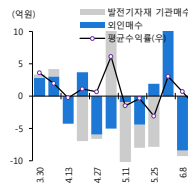


▶발전기자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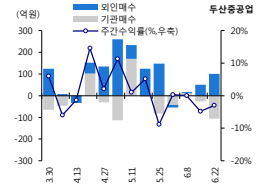


발전업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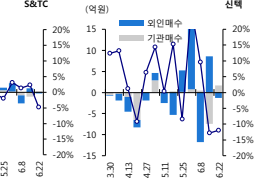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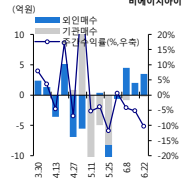
▶발전기자재5사(두산중공업 제외)



▶두산중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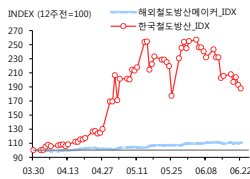


주식: 비에이치아이, S&TC, 한솔신력, 대경기계기술, 케이씨코트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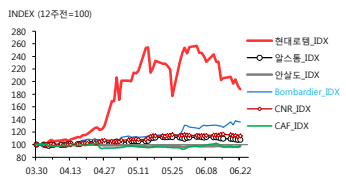


철도/승강기

▶철도 vs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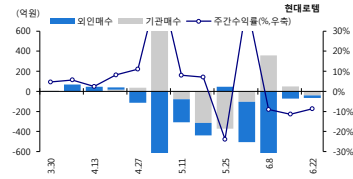


▶철도 vs Global Peer 개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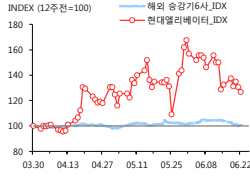


철도/엘리베이터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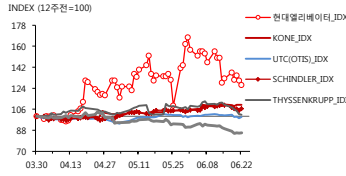
▶현대로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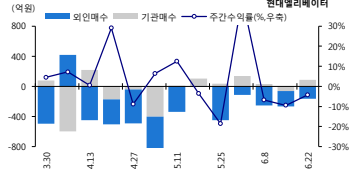
▶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



▶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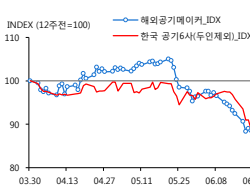


▶현대엘리베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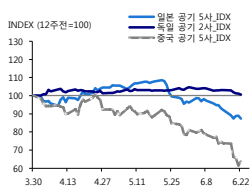


공작기계

▶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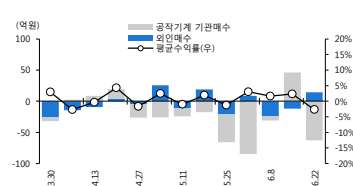


▶Global Peer - 지역별



공기 수급

▶공작기계 부품 수급

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▶회사는 해당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▶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▶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▶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▶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.
▶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최광식, 원민석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립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역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(2017년7월1일부터 적용)
-Buy(매수): 추천일 종가대비 +15%이상 -Hold(보유): 추천일 종가대비 +5% ~ -15% 내외 등락
-Sell(매도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이상
2.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기종역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-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-03-31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자의견 비율(%)	93.60%	6.40%	-